

29. 다시 탄천의 늦가을 속으로(11.30)

제목 1: 아들 내외의 연말 스페인 여행

아들 내외가 성탄절 날 스페인으로 여행을 간다. 5월 말 결혼하고 사정이 있어 신혼 여행을 제대로 다녀오지 못했다. 그래서 이 번에 신혼여행 겸 가는 모양이다. 오래 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.

서울 - 바르셀로나 - 마드리드 - 서울 일정인데 이번 여행에서 내가 바르셀로나는 가지 않았으니 인계해 줄 것이 없고 마드리드, 톨레도, 세고비아 일정을 짤 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SNS를 통해 보냈다. 새아기가 ‘오와! 대박! 까악 아버지 감사합니다~!’ 하고 문자로 답한다.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란 ... 구김살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웃음이 나온다.

아들도 스페인에서 2년 학교를 다녔고 또 스페인어를 하니 여행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과거 살았던 집주소 등 몇 가지는 필요할 것이다.

제목 2: 다시 탄천의 늦가을 속으로

토요일 오후 좀 늦은 시간 탄천을 산책했다. 아내는 여독을 푸는 중이고 나는 하루라도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몸풀기를 시작한다.

집 앞 소공원의 낙엽이 거의 떨어졌다.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만 빼고 갈색 풍경이다. 스페인의 노란 가을과 비교된다. 스페인도 노란 잎들이 다 떨어지면 앙상한 가지들만 남을 것이다. 그러나 느낌이 다르다. 아마 산하가 달라서 그럴 것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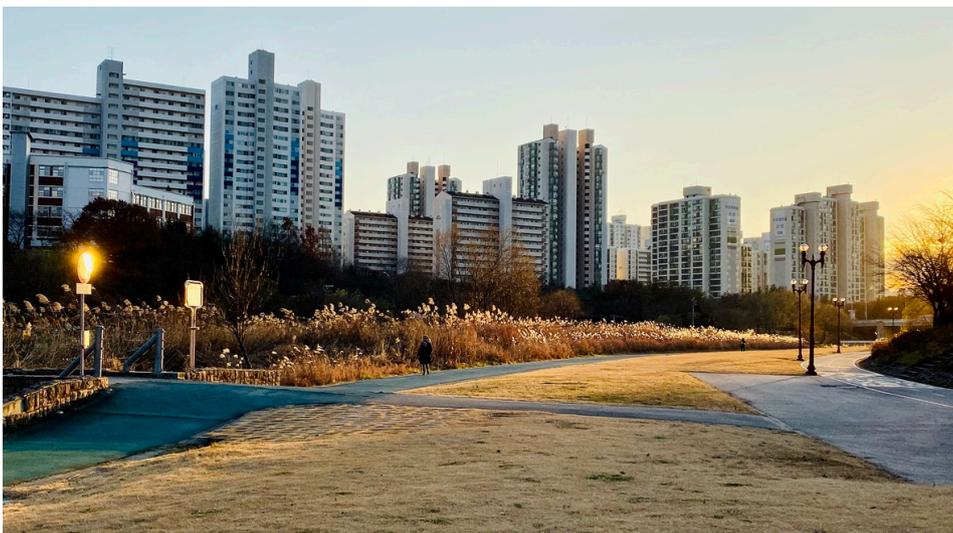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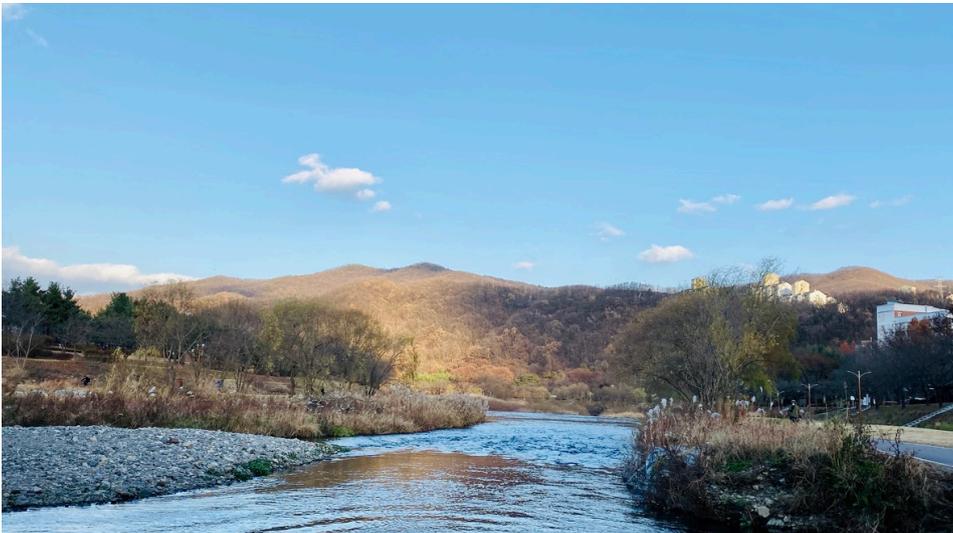
그래도 분당 탄천의 늦가을은 잘 정돈된 아름다움이 있다. 갈색 낙엽이 바닥에 깔리고 갈대와 강아지 풀도 갈색을 연하게 띤 노랑색으로 바뀌었다. 모두 늦가을임을 알려주고 있다. 갈대 꽃도 석양 빛에 빛난다. 역광으로 보는 갈대 꽃은 특히 아름답다.



산책하다 멀리 산등성이에 비치는 석양 빛이 그 곳을 향해 흐르는 것 같은 탄천의 물색과 어울려 깊어가는 늦가을 풍경을 만들어 낸다.

확실이 탄천의 늦가을 정취는 스페인의 그것과 또 다름을 느낀다. 스페인은 동적인 쓸쓸함 이라면 탄천은 정적인 쓸쓸함 이랄까 ... 느낌을 문자로 표현하는게 쉽

지 않다. 느낌이란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.



탄천 주변 도로도 온 몸으로 늦가을을 주장하고 있다. 평범한 길이지만 다시 눈을 뜨고 보면 온 주변이 늦가을 투성이다.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12월 이다. 겨울이라는 계절로 들어간다.

2019년 가을은 끝났다.

